

# “불완전함 속 피어나는 아름다움, ‘관계’의 깊이 담아냈죠”

지역 문화와 함께 호흡하는 광주매일신문이 지역 유망 작가 발굴 및 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작품 판매전을 개최한다. 판매전은 오는 27일부터 10일 동안 동구 ACC디자인호텔 1층 갤러리에서 ‘예술을 선물합니다’를 주제로 열린다. 작가와 컬렉터의 예술 동반자로서 역할을 하며 예술적 공감의 폭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잠재된 역량으로 무한 성장을 펼쳐가고 있는 설상호·이철규·전현숙·강남규·조강현, 개성 있는 표현으로 주목받는 이정록·박희정·염순영·진허, 청년작가 웨이더원·전정연·이다애·전동민·지니킴 총 14명 작가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편집자주



## 〈1〉 설상호 작가

“우리의 삶은 항상 완벽할 수 없어요. 형태나 과정 등 모든 것이 불완전한 상태죠. 하지만 이조차도 품어낼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길 바라며 작업을 이어가고 있어요. 수많은 관계 속 인간 삶의 깊이를 드러낼 수 있는 작품을 선보이고 싶습니다.”

양한 재료를 수없이 쌓아 올리는 작업을 펼쳐 보이고 있다. 여기에 사포질을 해 갈아내고 다림질해가며 만들어진 원단을 바탕으로 한뼘 한뼘 수를 놓듯 ‘막사발’ 위에 물감을 얹혀낸다. “작가가 얼마만큼 애정을 갖느냐에 따라 작품이 가치를 얻을 수 있다고 봐요. ‘항마’는 무언가를 그려내기에

지난달 28일 서구 작업실에서 만난 설상호 작가는 자신의 작품세계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제 작업은 미학 개념인 ‘와비사비(Wabi-Sabi)’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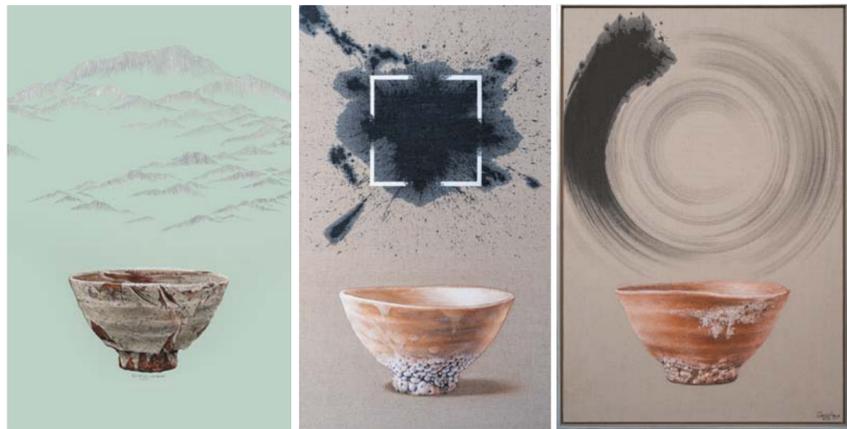
완벽하지 않은 것들의 소중함을 나타내는 이 철학을 현대적 시각으로 재해석한 것이 ‘관계’ 연작입니다. 이는 인간관계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감정들과 닮아있어요.”

“관계”를 주제로 오랜 시간 기법적인 시도를 거듭해온 작가는 거친 질감의 황마를 캔버스 삼아 수채물감과

### 거친 황마 위 쌓아낸 물감과 재료의 조화 여백과 성찰, 입체적 공간 속 관계의 미학 ‘막사발’ 속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멋 투영

거칠고 어려운 원단이지만, 나름의 노력과 손길에 따라 그 무엇보다 고급스러운 작품이 될 수 있습니다.”

작품 속 막사발은 완벽한 대칭이나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 오히려 특유의 소박하고도 자연스러운 멋이 돋보인다.



설상호 작가의 ‘관계’ 연작



작업실에서 포즈를 취한 설상호 작가

/김충식 기자

어디서 보느냐에 따라 형태가 달라 보이고, 가마 안에 들어가 뒤틀리고 형태가 변하며 변색하기도 한다. 이러한 ‘비정형성’은 시간이 흐르며 저절로 발생하는 변화와 소멸, 그리고 과정 속 남겨진 흔적들을 고스란히 나타낸다.

“삶에서 관계를 맺는다는 것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여러 번의 만남이 차곡차곡 쌓아 올려질 때 비로소 관계가 형성될 수 있듯이 제 작품 또한 일련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조그마한 삶들 하나하나가 모여 제 손에서 문어나고 연결되고 이야기가 되는 셈이죠.”

술한 과정을 거쳐 오랜 시간 공들인 작업이기에 그의 회화 작품은 입체감이 살아 숨 쉬는 도자기를 그대로 붙여 놓은 듯하다.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넘어 수많은 ‘관계’ 속 진정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싶다는 게 작가의 이야기다.

최근 작가는 귀금속 세공 도구를 활용해 물감을 파내는 작업이나 3D 펜을 활용한 작업 등 재료에 대한 연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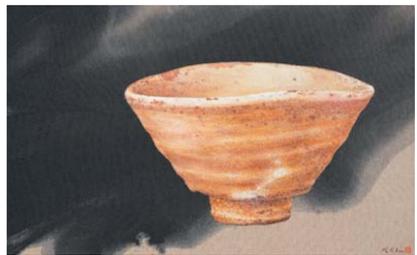
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법을 끊임없이 적용 중이다.

“다양한 생각과 방법이 결국은 작품에 그대로 투영된다고 생각해요. 생소한 기법을 사용할 때면 뭐든 전문가를 통해 배우려 하고요. 어떤 재료들이 어떻게 작품에 응용될지 늘 생각하는 거죠. 질문하는 데 인색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는 걸 두려워하지 않는 게 중요하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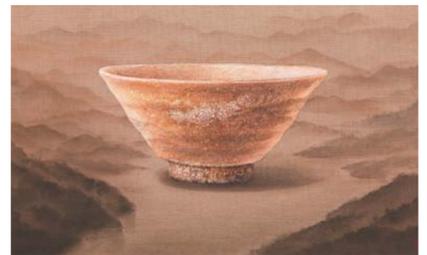
여러 방식의 시도로 관객들에게 새로움과 놀라움을 선사하는 작업을 펼쳐오고 있는 그에게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들어볼 수 있었다.

“입체적으로 확장해가는 제 ‘관계’에 대한 작업을 시각·촉각적으로도 나타내고 싶습니다. 평면이 아닌 공간에서 오롯이 느낄 수 있는 작품을요. 특히 제 작품은 70% 이상이 여백이기에 관계에 대한 성찰이나 마음에 대한 여유 등 잠시 생각해볼 수 있는 시간을 선사하기도 합니다. 마치 거울처럼 제 그림을 바라보며 관객들이 스스로와 대화해볼 수 있길 바랍니다.”

/최명진 기자



‘관계’



‘관계’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장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나눌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사·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칠 것입니다.

**8미를 품은 땅끝 해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5일장**  
**해남군 북평면 남창5일장**  
**해남읍 5일장**

매(맛 미) 해남의 풍부한 농수산물 먹거리, 미(아름다움 미) 아름다운 남쪽 해남, 미(미혹할 미) 마음이 이끄는 곳, 미(골 미) 해남의 땅끝의 감성, 테라피 해남

직접 농가에서 수확한 신선한 농산물과 인근 바다에서 수확한 해산물(낙지, 굴, 숭어, 전어)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옛 시골장의 정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 장이 서는 날 ☉

- 우수영5일장 : 매월 4일, 9일로 끝나는 날
- 남창5일장 : 매월 2일, 7일로 끝나는 날
- 해남읍 5일장 : 매월 1일, 6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해남군**

문의 : 062)650-2099